

외대학보 405

영화로 세상 읽기 (2) - 러시아: 전함 포템킨

영화 속에서 부활한 포템킨호의 혁명

혁명정부, 계급의식 고취 목적으로 제작

‘피의 일요일’에서 출발한 혁명분위기가 묻어나

1917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실현되었을 때, 계급의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 더 이상 인간이 인간에게 착취당할 수 없다는 사회주의 이론이 얼마나 성공적일지, 그리고 이론에 이상적으로 구현된 그대로 실현될 것인가는 미지수였다. 하지만 그 혁명은 당시 러시아 사회와 역사의 발전단계에 있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이론으로 무장된 지식인들이 아니라, 잠재적해와 신중자본에 의해 가장 기본적인 인간 가치와 존엄이 훼손당하고 있던 평민 대중과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보장 받고자 하는 각성과 인식이 고양되면서 주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당시 러시아의 혁명적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어, 특히 1905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피의 일요일에 일어난 1월 22일에 있었던 대규모 노동자 학살은 전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이후 연속된 노동자 파업과 농민농기의 직접적 도산이 되었다. 이러한 반정부·반자본의 혁명 운동은 평민과 노동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군대라는 가장 세력 순응적인 조직에서도 일어나게 되면서 혁명 운동이 전국민

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1905년 6월, 흑해 함대의 전함 포템킨호에서 해군 병사들이 너무도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처우에 분노하여 일어난 투쟁이 군대가 혁명 운동에 참여하게 된 대표적 예이다. 비록 그 투쟁은 병사들의 비조직적인 혁명적 의식과 연료와 윤활유 부족으로 무참한 것으로 끝났지만, 사상 최초의 군함의 전 승무원이 혁명의 깃발을 내걸고 기존 체제에 맞서 일어났다는 데에, 그리고 그해 군대 역시도 혁명적 대열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데에 매우 큰 의의를 지닌 사건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템킨’이다. 전함 포템킨호의 해군 병사들은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식사로 매우 지쳐 오데사 항구로 오고 있었다. 그러나 군 상층부는 여전히 비인간적으로 병사들을 학대하는 싸늘한 고기와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고기로 만들어진 스토프를 먹도록 강요하기까지 하고, 이에 분노한 해군 병사들은 더 이상 항복과 군 상부의 노골적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일어났다.

그 투쟁의 주도적 인물인 바를라미르가 사살되고 그 소식은 오데사 주민들 사이에 알려지고

오데사 주민들은 그를 애도하고 포템킨호 병사들을 돕기 위해 항구로 모여든다. 그 순간 항복 군대와 카자크 가병들이 나타나 비무장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다. 오데사 항구를 향한 계단은 주민들의 시체로 뒤덮인다.

어린 아이, 노인, 여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주민을 사살하는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황실 군대는 다름 아닌 황실의 황포 그 자체였고, 당시 러시아 국민들이 처해있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1925년 제작된 이 영화는, 소비에트 영화가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러시아 민중을 교육·교화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계급의식을 고취시키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혁명정부의 의도 아래 만들어진 가장 성공적인 파장 대규모로 촬영된 수백편의 장편 영화 중 하나인 이 혁명 20주년을 맞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을 아우르는 1905년의 혁명적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에이젠슈타인 감독은 그 중에서 전함 포템킨의 역사적 사례를 택하였으며, 그것은 단일 사건을 영화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유적 표현을 가지면서, 그를 통해서 전체 혁명의 분위기와 장엄성 모두를 성공적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그 당시 광란의 전제 황제의 황포와 학살에 무력하게 탄압 받은 최하층 대중에 대한 상황은 영화에서 오데사 계단 장면을 통해 극명하게 보여진다. 총에 맞은 어린 아들의 시체를 안고 있는 황실 군대를 향해 다가가지 말라, 힘없고 최하층 그 얼마나 황실 군대의 함께 드러내라! 그림자 아래 총에 맞고 쓰러지고 있다. 그러한 잔혹성은 갓난 아이를 배운 유모아를 들고 거문 같은 열마리 총에 맞고 쓰러진 후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계단을 굴러 내려가는 유모차를 통해 더 여실히 드러난다. 아무 죄도 없는, 이제 막 생을 시작하는 아기조차도 무자비한 황실의 권력 아래서는 인간성 상실로, 거처도 보장 받지 못하고 아무 의미를 갖지 못 하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 황실은 타도되어 마땅했던 것이고, 러시아 민중들은 더 이상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아야 인간다운 삶과 광등을 보장 받고 누릴 수 있는 혁명에 주체로 설 수밖에 없었음을, 혁명은 그 당시 역사의 합법적 발전에 의한 당위성을 가진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템킨호의 투쟁이 비록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끝났지만 영화에서는 성공한 투쟁으로 그려지는 것이며, 민중의 힘과 의지로 혁명은 정당함을, 혁명의 영웅은 바로 러시아 민중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영화로 에이젠슈타인은 세계적 명성을 얻은 감독이 되었으며, 그의 영화에서 보여준 여러 기법들을 풍미하는 영화 언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비록 에이젠슈타인이 소비에트 정부의 이데올로기 선전에 영화를 이용하였다는 면에서 평가절하되는 면도 없지는 않지만, 영화를 통해 역사를 새로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가 가진 표현적 잠재력을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화사적으로 많은 공헌을 했다. 그의 ‘전함 포템킨’은 1905년 혁명으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1917년 혁명의 성공으로부터 8년이 지난 후에 제작되었고, 그러므로 이미 혁명에 대한 확신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수 밖에 없던 영화이지만, 당시 러시아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성공적인 영화 재현의 사례로 꼽힐 수 있는 작품이다.

이희원 (노여과 강사)



- 이탈리아의 이해

로키움

이탈리아의 가정문화



김성호 교수
(미디어학과)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들을 보호하는 안정망의 역할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이행에서 핵가족으로 대체되는 근대가족의 해체 내지 새로운 가족의 구성을 전방위하는 학제적이지 않다. 전통사회에서 가부장적 사회로의 변화와 핵가족 내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전환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족은 변형된 확대가족, 재조합가족, 단가족, 동성애 가족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사회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가족간의 유대가 넓다르며, 산업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확대가족이 광범위하게 존속하고 있고, 이들이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설명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영미 사회과학계의 주류적 해석과 동떨어진 현실이므로 이탈리아의 사례를 예외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이론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 이후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인 이탈리아에 대한 사회과학계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성장을 설명하는 요인을 경제 내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역사 문화적 차원에서 규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는데, 이탈리아의 경제발전은 가족이 중심이 된 중소기업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이탈리아의 중문화는 장기적으로 걸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특히 중세후반기 11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중세자치도시(commune)의 발전에서 상인층과 장인층이 중심이 된 민주적이

며 수평적인 지방문화의 구축이 오늘날 중소기업의 사회적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modernism)로 표현되는 이러한 시스템의 구축은 지방정부, 지방기업 및 지역주민이 상생협력에 들어 독특한 시민문화를 형성했다는 주장이다.

사실 근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보편주의가 아닌 특수주의적 가족주의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시민성과 형성에 저해 요인이 되는 기로 부여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에마누엘 토 등의 유럽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이탈리아는 중소기업이 발달한 중부지역에서 공동체가족이 많이 나타나며 여기서의 부모와 자식에 대한 통제와 확고하고 자식들이 혼인을 한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현상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된 산업화와는 차별적인 소도시 내지 농촌 지역에서의 산업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농촌 지역에서의 산업화는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유형과는 다르게 새로운 주택건설과 같은 추가비용이 요구되지 않으며 산업화와 농업이 혼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계침체나 산업구조의 개편기에도 유연성을 보이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가족주의와 산업화가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지방중심의 이탈리아 산업화는 산업지역(Industrial District)으로 표현되어 제3세계에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연구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다. 중소기업 집단이나 확대가족의 존재만으로 산업지역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기술수준과 민주적인 지방문화의 존재여부가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 이들 연구의 결과이다.

도쿄대학 여성 절반

‘성희롱 당했다’

도쿄 대학의 여대생, 어찌보면 절반 가까이 어떤 형태로든 학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 도쿄 대학의 학내 일보에 따르면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여대생(대학원생 포함)은 48.8%, 어찌보면 45.2%에 달했다. 구체적인 사례는 용모나 체격을 화제로 삼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인 이야기를 듣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받았다는 응답은 여대생 32.7%, 어찌보면 30.9%, 교내 교외는 각각 15.0%, 10.4%였다. 성적 행위의 강요 및 마약과 같은 약질적인 ‘성폭력 행위’는 15%, 9%에 달했다. 이번 일보에는 지난 해 6-7월 실시됐으며 응답자는 약 2천500명이었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제

개혁의 서명

유고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지도자들이 14일 연방제 개혁안에 서명함으로써, 유고연방을 존속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합의에는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 유고연방 대통령을 비롯해, 밀로 루키치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 조란 지지치 세르비아 총리, 필립 부야노비치 몬테네그로총리, 하미르토 슬라나 유고연방(UN) 공동 외무·안보 고위대표 등이 서명했다. 진지치 총리는 두개의 반(반)독립 국가로 구성된 ‘성폭력 행위’는 15%, 9%에 달했다. 이번 일보에는 지난 해 6-7월 실시됐으며 응답자는 약 2천500명이었다.

당당한 파트너, 라이벌의 조건!

치열했던 월드컵 유치비화부터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충고까지. 일본에서 더 먼저 관심을 끈 화제작!

일본에 말한다

이처럼 당당하게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책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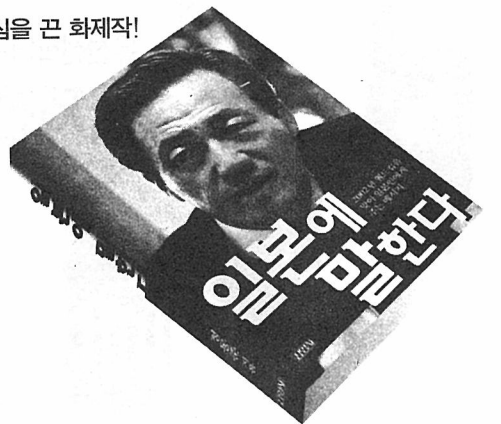
누구나 말하고 싶었지만, 소신껏 드러내지 못했던 이야기—어째서 일본은 주변국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가? 반일(反日)과 혐한(嫌韓)의 한일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던지는 충고. 1995년 (일본의 정부와 기업관계)에 이어 정몽준이 다시 밝힌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생각. 진정한 파트너, 진정한 라이벌이 되기 위한 한일의 조건은 무엇인가? 성공적인 2002 월드컵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한 일본인의 선행은 어떠한가? 이처럼 잘 정리된 일본인을 위한 훈계는 없었다. 한일공동월드컵의 한국책임자 정몽준이 마침내 내놓은 맵고 호된 목소리. 그 속에 담긴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교훈과 메시지.

정몽준 지음 | 양장본 | 240쪽 | 9,900원



정몽준(鄭夢準)

대한축구협회 회장,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한국조직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미국 MIT 경영대학원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국제정치학 박사, 현대중공업 사장, 회장 역임, 현재 4선 국회의원(무소속),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홈페이지 www.mjchung.com 이메일 mj2002@mjchung.com



“좋은 대화를 사이에 둔 한일양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좋은 의미에서의 라이벌이며 파트너로서 협력해야만 진정한 경쟁이 될 것이고 국제관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일본인은 이웃나라인 한국과 한국인의 진정한 마음 그리고 한일간의 복잡한 역사를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있는가? 월드컵 공동개최를 준비하는 한국측 조직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그리고 한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기 매우 어렵다.”

- 저자 서문 중에서

흡인

글을 발신하다

지적: 의대원(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제한 없음 / 매수: 200자 한도지 7매 내외 / 마감: 매주 금요일 자정
투고방법: 학생지(지식(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전자우편 oodabpress@hmail.net
지대학보 및 교감에게는 부인이 아니라 지를 대변하는 논으로 비정해 주십시오.

출신(Hufsan)은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d의 준문자입니다

구내서점의 폭리와 불합리한 운영

신학기를 맞아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구내서점을 이용하여 필요한 교재와 사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내서점의 서비스는 불친절과 측근이 어려운 가격으로 이용하는 고객, 즉 학생들에게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신학과 구내서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혼란에 정신이 없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혼란스럽고 해서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친절한 상정이 결코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두번째, 환불에 관한 문제입니다. 신학기에 많은 과목들이 폐강되고 또한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하여 교재를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우리 구내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 대응은 마치 "너네 실연인 대환설정이 가서 서점부터 환불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실연인 대환설정이 가서 서점부터 환불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네 실연인 대환설정이 가서 서점부터 환불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도서 할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 구내서점에서는 카드로 도서를 구매할 때 상당한 할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비싸게도 운영되는 학교 구내서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금이 없어 오히려 서점의 마진을

이 높으며, 카드이용이 수수료 부담보다는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생각했을 때 더욱 바람직한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점 측에서는 2%대의 카드 수수료를 이유로 10%의 할인율을 카드 결제시 당 한도도 적용해주지 못하여 정 아쉬운데 현금 내고 시키는 식으로 아주 단호하게 부당함을 말하는 제에 답변을 하더군요. 심한 경우 10,000원에 가까운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도... 저는 그냥 서점 문을 박차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 통해 이런 답변을 올리더군요. 서점 측은 "문제가 제기된 카드수수료 관련 환불부분에 관해서는 단지 구내서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내서점 담당자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 편집자

"배 짜라"

마티즈에 볼트를 박는 공돌이였던 내가 손아 무릎을 단단히 건 2년 전이다. 민첩한 그는 난동을 부렸고, 사장이 난대 K를 폭행했다. 나는 그를 때려 내었고, 손아무개는 장사용으로 놓아 있던 책다마지 발을 내 머리에 꽂았다. 뜨거운 액체까지 나를 감쌌다. 세뱃돈 선물을 통째로 이전에 죽음을 공포로 느끼게 한다. 죽음을 살릴까 나는 살기 위해 무릎을 내렸다.

그의 고소를 막기 위해 나와 K는 그의 병사를 찾았다. 손아무개는 자신의 수습비 및 치료비용으로 이원인원을 제시했고, 우리는 고소를 물거품으로. 돈이 없어 휴학을 하고 공장으로 갔던 나는 직업을 결심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일하러 식당을 소개하고 내 손목을 잡고 손아무개를 찾았다. 부를을 풀고, 젊은 제 새끼를 집어 넣었다. 앞으로는 늙은 손아무개의 몸부림을 보며 나는 과묵함을 찾았다. 육신 남은 남구의 처절함을 그도 일의 의미를 기억했을까. 저가 목욕탕에 고소를 포기할 만큼 없지만 결사적 애매함에는 상황에 그는 시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내뱉었다.

"짜라... 너도 몰라, 배 짜라!" 그는 부두목 조폭도, 경찰도 아닌 그저 양치기였다. 결국 K가 가게를 정리했다. 손아무개는 돈을 벌었고, 나는 실업생 되었다.

배와 더불어 배는 아파기를 깨면 이유는 이시점부터이다. 부두 후 처음 공식석상에 나타난 이시점은 울며배를 학생의 친구들의 평화적 시위를 이단으로 간주해 일하고 직장

을 나가버림으로써 입학식을 내렸다. 뇌동부 화 했던 나머지 관계자들은 이시점 앞에 파리 목숨인 그들의 현실을 간음해 눈감아 준다 해도 "너 집어 넣어라"라는 군수독재자를 게 워낸 사장의 방학한 수습법을 보여 내는 자기 배는 제도 단단히 건 건 손아무개를 생각했다. 친구들 몇몇은 사발을 했고, 또 몇몇은 목숨을 걸고 밥을 굶는다 한다. 2년 전 나는 손아무개의 배를 제치 않았고 지금도 그런 구체적인 상상을 고향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학생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회향된 뱃가죽을 드러낸 학내의 수많은 이시점과 대학원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칼을 들이댔다. 한층 남은 내 양상에 놓인 그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패배지 못한 글로바라 그들을 지지한다. 오늘날 각기 다른 얼굴을 한 수많은 이시점과 대학원생들은 2년 전 손아무개 멘트를 빌려와 내자된다. "배 짜라" 짜라라 들이치는 배는 짜버리면 고장이 났다.

2001 4월 17일 토요일에 피폭된 문과와 근거리들은 통곡금 인사관대를 가지로 한 비학생학생회가 열렸다. 비학생학생들은 학생회학생 1/10 이상의 참성이 있어 열릴 수 있다고 한다. 취업을 위해 두터지처럼 도서관과 강의실을 전진하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지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 행에서 내가 취업을 할 도록 마릿수라도 채워주는 것이 그 충동을 해소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현경원 (법 · 법학 99)

왕산의 골칫거리 '교통문제'

지금 현 시점에서 의대(왕인캠퍼스)에 큰 골칫거리가 되어있던 교통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펜을 들었다. 현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아침 등·하교 시간의 혼잡(1500-2000)이다. 다른 부속의 문제 -
2. 경전철 소문
3. 현재와 미래(1, 2, 3교시)등교시간 때의 배차 문제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버스를 타려는 줄이 있는데 이버트의 정원을 막고 훨씬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간 때에는 제 생각에는 15분 간격 운행 배차 10분 간격 운행만 해도 교내로 도착하는 학생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5분만 한 대는커녕 30분 이상 한 대가 올 때도 있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이유와 다른 모든 이유가 만족되어야 한다면 1500-2000의 혼잡 문제는 풀리게 될 것입니다. 3교시 이후에는 한층 더 혼잡한 것 같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을 많이 줄일 수 없는 하나의 요인에 해당합니다. 또 차가 부속에서 오는 학생들이 한 대입니다. 한 대를 고속도로에서 양방향으로 배차 있고 서서 기다리는 자살 행위 아닐까요? 이런 이유에서 종차는 더욱더 혼잡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 전날 하교시간(7, 8교시)을

마치고 갈 때에 2, 3시간 차를 탔기 때문에 늦게 집에 도착해 리드오프를 작성하다 보면 다음날 자연적으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오전 데 맞춘 것으로 학교를 가기 위해 (많은 때는 150-200명까지 되는) 줄을 서는 것은 학우들의 일의 하수일뿐이지 사자처럼 버리게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 같아선 1117 버스를 가져다가 1500-2000으로 바꿔서 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해결할 것들에 관한 소문입니다(해결하지는 않겠지만) 교수님들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용인 일대에 경전철이 들어오는데 명지대, 용인대, 강남대까지 다 걸리는데 우리 학교가 앞으로 교통문제 때문에 좋은 신입생을 받지 못할까 봐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전 부속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도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해 볼까 봐 조금 걱정을 했었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재가 있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더 이상 학생이 불편한 이유를 가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문제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과정을 통해 공자를 부처시거나 아니면 의대학보를 통해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욱 (정보산업공 · 디지털정보공 01)

내가 총파업을 지지하는 이유

왕산은 올해도 역시 총파업을 거친 총파업을 실시했다. 따라서 27, 28 양일간 총파업에 들어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노동자들은 회사측에게 자신들이 받고 있는 부당함을 일괄 권리를 포기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수업 들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측의 부당함에 대해 최후의 카드를 내는 것이다.

올해 총파업의 이유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근무제 의거한 통곡금 인사 때문이었다. 작년엔 7% 올랐는데 6.8% 인상을 줬다. 매년 이렇게 오르면 통곡금 인사에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통곡금 인상은 3%에 불과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더 이상 학교측을 지지할 수 없었다. 이에 배가 12%인 금액을 가지고 나서서 학생들에게 상심 쓰는 것 6.8%까지 내려서 더 이상은 못 내리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한국외대이다.

작년 총파업의 슬로로 이끌어낸 합의사항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통곡금의 존속을 폐지하고 했으나 학교측은 여전히 재단 집합을 내고 심지어 수습이 발생하지 않아 수습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함으로 매년 학생들이 내야하는 통곡금이 점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통곡금에 대해 고민하고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건설한 통곡금 행정위원회는 학교측의 불성실함

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교측의 무능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문제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권을 담보로 총파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엔 사한부도 이틀간 진행된다. 물론 이 총파업에 대해 반대하는 학우들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파업에서 반대했던 많은 학우들을 무시했던 인과대로 반대하는 학우들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전 훗날 외대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후에 들어올 내 후배들 그리고 어쩌면 내 자식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 학교를 제대로 세우고 싶고 싶은가. 정말로 학생들과 공유했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학교를 세우고 싶지 않은가. 학교가 먼저 그걸 생각할 없기에 우리 학생들이 산배로 서 학교 구성원의 하나로서 실천해 나가자는 단란한 것이다.

27, 28 양일간 외대 학우들에게 잊혀지고 싶다. 이불만이지만 민주적인 파업수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 총파업에 적극적 참여를 부탁한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이런 애교심을 생각해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실 것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우리의 앞길을 함께 비추길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하나하나 더 거근자라 무엇이 올든 일인가 실천해 나가자. 덧붙여 앞선번에 반대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신 많은 학우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보성 (동유럽 · 폴란드어 00)

생활 정보

모집 2
공모접수인 본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기입한다.
- 후원접수는 마감일 도착전에 한한다.

모습을 기동모터(준) 사백에 길어올린 생물을 기동을 통하여 사물을 통하여는 새치기를 기다립니다.
http://www.freshsal.com/seasam
김현식 016-254-4075

모습을 밟다 하수선 지류선 모임
이웃사랑을 함께 할 새치기를 찾습니다.
오세음 019-637-5374
안재홍 018-617-7007 문의바랍니다.
http://kds.daum.net/hulsannewsfor

모습을 말소리로 함께 모인 젊은이 여러분이 교회 카톨릭 청년 신사모임 그룹 모집
www.freshsal.com/freshsal / jlsn957@freshsal.com
016-9356-0216

모습을 길고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나니. 우리의 실상은 끝내 잊혀져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낮은 목소리처럼 무명으로 가는 정승국을 울리고 있구나

- 원동 위즈니스 플랫폼 -
음악과 함께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 서울 학생들과 함께 소통을요만-

모임 동양학대. 동유럽학대 연합 역사여행동미리 역/마실
동유럽학대: 4070
동유럽학대: 4384
여행대: 김윤식 011-9009-9005

모임 2002 세계 민속문화축전 준비 위원회
2002 세민전을 함께 준비해나갈 친구를 찾습니다.
알림과 도전정신만 있으면 됩니다.
합계 2002 세민전을 맞게 해드립니다.
세민전에 대해 알고 싶거나, 함께 해보고 싶으신 학생이면 31호로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011-330-4154 011-9942-3573 011-9009-7500

찾아가세요

모습이 지역 지원(DLE:델레) 시험안내
원서접수기간: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원서접수처: 시험대 대관

시험일시: 5월 11일
시험 종류: Certificado Incl(조급자격)
Diploma Basico(중급자격)
정원할 조급자격: 330명
카드접수기간: 02.00월
02-774-3301, 2

모습이 만드는 성취력특화 관리정책 공모
기간: 3월 15일~4월 15일
대상: 일반인(참가자격제한 없음)
email: kcc@kcc.org

모습이 17개 소림에게 담겨 있음.
택배로 왔는데 저의 과가 적어있지 않아 도저히 찾지 못하였음.
제 이름은 유재현 이고 과는 중국어과입니다.
연락처: 017-710-7537

그 말씀이다

모습이 19일(월) 밤 11시부터 20일 아침 8시 사이에 이준구 이사장 집사(전신)를 물러놓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시한을 줄 수 없게 생각나 아예바로 내려가다 화상실에 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목이 아니라서 두 손의 음료수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선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 500회인가 아는 사람 몇 없을지... - 명칭한 남 -
- 작업하다. 역시 힘의 리다. 우리도 할 수 있다. - 권부선수 -
- 박정희한테 붙어봐 - 일빈빈 -
- 히로시마의 기억을 한번 더... - 뉴 클레아 -
- 오노스런 놀음... - 한국인 -
- 히틀을 키워서 한소리 한방에 잘못했다는 말 받아내자. 국적이 장이다! - 애비끼 조교 -
- 독후감으로 배재우려는 중장년. 이상적인 삶과 같... - 애국자 -
- 우라할 왜 일본놈들은 불매운동 안하냐? - 사회운동가 -
- 차려한 일본 국부정을 데려와면 어떨지... - 김련 -

수장

담배 연기 속에 사라져 가는 외대의 양심(Prisoners of smoke)



Fred Jeremy Seligson
(영어교육과 교수)

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여학생이다. 나는 종종 그들이 왜 하는 시대로 복도에 나가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고려하는 지 궁금했다. 그러나 최근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나는 시한을 줄 수 없게 생각나 아예바로 내려가다 화상실에 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목이 아니라서 두 손의 음료수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선

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저 멀리 수평선을 보며 책이 쪽으로 갔다가 내 앞에 서 있던 학생이 불타는 담배연기에 매우 불쾌해한 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쉬는 시간에도 '죄인'(prisoners of smoke)인양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 이들의 감성적과 건물을 한 마리로 '죽음의 덫'(deathtrap)이다. 젊은 학생들이 애처롭게 담배를 배우는 것은 학생이 폐기능의 약화가 정형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담배로 이어진 방에 걸려 죽음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서게 된다. 이는 실상인양으로 간접경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죽음의 표적이 된다. 그래서 나의 기업을 학생들은 10분 동안의 휴식 시간의 자유를 빼앗긴 채, 단지 단련할 교실 안에 갇혀있을 뿐이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코, 폐, 피부, 머리카락, 피부, 모든 담배연기로 더럽혀지는 것을, 생명이 단련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

이다. 이러한 학생들이 과연 누구에게 불행할 호소한다 말인가? 학교에서? 학생회에서? 그들은 분명 복도에 나가 편안한 휴식조차 취하지 못하는 학우들의 불행을 외면해 왔다.

흔히자의 원으로 버거하다면 지역 비정부 단체(NGO) 또는 한국정부의 도움을 얻어 해낼 수 있다. 외국의 감성적과 건물은 한 타인에 대해 배려 없이 담배를 피우려는 이기적인 학생들과 다를 바 없다.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먼저 나서서 학우들의 불행, 고민을 풀어주어야 할 그들이 아무런 자각없이 방관하고 게다가 바람직하지 못한 학내 훈육 문화 조성에 일조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가 직면해 수동적인 자세를 일관하는 한, 교수, 직원, 학생들 모두 담배연기로 자욱한 학교건물에서 심지어는 건물 밖에서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이러한 우리의 소극적인 태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질량(quality of the crime of neglect)이다 우리

모두 부러워해야 한다.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의 약양함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어린이의 권리와 건강에 대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외대의 현실이다. 학우들의 편한한 틈타가 되어야 할 복도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지식인들에게 학문을 익히는 대학교에서 보아져야 할 모습은 분명 아니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어떤 채, 방관만 하고 있는 학교나 학생회는 또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요즘은 금연 열풍이 한창이게 되어있다. 이 때가 학교나 학생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정부나 국가 정부와 함께 공동으로 일주일의 금연 고국 박탈을 계획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때이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 모두가 외대뿐 아니라 모든 모습에 눈을 뜨고 궁극적으로 외대의 건강과 밝은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번역-송혜민(통학 · 미인인 99)

영화평

가볍게 알아가는 '타인의 취향'



"네를 잊었나? 이게 있었나?"
술을 광고하는 모 CF의 한 장면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강제되는 술 문화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를 빗대어 역설적으로 자신의 술을 광고하는 이 부분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 내가 쓰려 하는 것은 그 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강제'된다는 광고의 내용이 대개이다. 누군가 여름에 정장을 입고 술마시는 신과 동료들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언·유언의 사회적 압력을 줄 것이다.
남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임에도 우리는 간

혹(사실 거의 매일) 망각하곤 한다. 서로의 개성을 찾는 시대지만 아직도 우리는 나와 다른, 무엇인가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남과 다른 나를 인정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못하다.
영화 '타인의 취향'은 사람의 다양성을 최후로 한다. 할리웃 대작처럼 유명한 배우도 없고, 스케일 큰 액션 원도 없고, 요즘 유행하는 극적 반전도 없다. 도대체 없는 것 투성이다. 그렇다고 불거지고 뭔가 묘한 매력으로 우리를 흡입한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결말까지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세 명의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사랑을 얻는 모습을 그런 이 영화는 취향이 제 각각인 사람들이 타인들과의 "소통"을 꿈꾸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예민하게 포착해간다. 어떤 커플은 타인의 취향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해간다. 또 다른 커플은 취향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혼자의 동굴 속으로 돌아와 응크리고 만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여섯의 주인공들은 서로 어우러져서 '나의 취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타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제 "취향"은 단순한 기호를 넘어선 "서로 다름"의 의미로 확장된다. '톨레랑스(Tolerance)'가 그저 우아말로 '관용'을 넘어선 '서로의

차이에 대한 존중 혹은 성향'임을 이 작은 프랑스 영화에서 또 한번 느낄 수 있다. 혹 짝꿍하게 매들지아저서 해피(happy) 혹은 세드(sad) 연담을 보기 원한다면 일찍이 포기하라 말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사랑과 사랑을 보고 그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적극 추천한다. 물론 프랑스 영화에 대한 선입관으로 다분히 흥미롭고, 신선하게 활약할 것이라 고 지레 단정 내릴 필요는 없다. 타인의 취향은 오히려 존재와 사유의 무게를 덜어내고, TV 드라마에서 보일만한 캐릭터와 대화의 흥미로움으로 가득 찬 말 그대로 만찬이기 때문이다. 그냥 디저트를 먹는 기분으로 당찬의 손으로 가벼운 수저를 하나 들고 떠내면 된다. 원하는 것...
영화 크레딧이 올라갈 때 문득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나의 무지에서 나온 그 많은 파소적 행태들이 떠오른다. 그렇다고 이 영화는 계속 자책하게 놔두지도 않는다.
서로 상처를 주고 치유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하다는 단순·소박한 진리가 '난 절대 후회하지 않아'라는 마지막 연주곡 속에 끝나 우리를 다시금 즐겁게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딱히 눈에 띄는 영화적 요소, 할리웃 로맨틱 코미디에 지쳐버린 이즈음에 21건의 즐거움을 보장하는 보기 드문 영화이다.
구창신 (서양·서반어 01)

새내기 노래 한마당 수상작 - 노래가사 바꾸기 -

기 적

나 종장의 눈을 바라보면
이 모든게 막힌 것 같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와 하필 외대인 이었는지...
죽어있었는지도 몰라요
종장의 배를 바라보면
배고픈 나를 깨달아요
종장을 알고 난 후 내가
등롱금 왜 냈는지 몰라요
죽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도 속아만 왔는지

사기꾼 가짜이 있었는데
우리 공부해야 할 시간도 너무 모자라요
학생회 밑어요 (밀음매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할래요
등롱금 얼마나 빼돌렸나? (배돌렸나요?)
우리 투쟁을 들었나요 (투쟁에 귀 기울였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등롱금 벌여 수납할 때
우리들 사정 알아줄 수 있게 되길
이렇게...



이제 새내기 노래 한마당 (주최: 중앙부서 1위 <수화>)



진수평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고개를 떨구며 길게 나오는 한숨. 그리고 잠시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그려봅니다. '민영화 반핵 실험'을 위해 직장을 떠나 해외 생활을 한지도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를 후원 회사측이 경고한 직장장 복귀 회수 통첩일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나라의 전력은 외국 자본의 손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고 말하는 여수 화력 발전 보조 이준성(37세) 미학하지만 그들에게 '힘내세요'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23일(토) 공권력을 피해 서울백문터에서 쉬고 있는 발전 보조원들을 만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송미경 (서양·이태리어 00)

어는 비릿하기 짝한 집어
한 소녀가 살았어
꼭론 바다를 잃은
아름다운 소녀였어

소녀와 소년은
금방 친해졌어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

소녀는 바다를
비라도 소녀를
무척 사랑했어

소녀는 정말 바다를
잃어 갔어
그러다가 소녀는 소년과 함께 바다를 떠나갔어

그러나
소녀와 바다는 약속을 했어
언제까지나 서로 사랑한다고 말이라

그래도
바다는 소녀를 원망하지 않았어
소녀가 사랑했기에
소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무척이나
꼭론 마음으로 소녀를 축복해 주었어

소녀는 잠에서 깨어나면
물결치는 바다처럼 아름다운 어린아이를 만날거라
흔히 해를 받아 반짝이는 바다를 보러 갈거라

그렇게만
바다는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그 소녀를 찾아
바다는 믿고 있어
언젠가 그 소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이라

한참이 작은 집의 구석까지
온몸으로 물결에 출면
소녀는 물결치는 바다 앞에서

지금도 바다는 여자 물결을 기다
'나의 소녀'
소녀를 내뱉어...



ihufsan
내가 해

외대정보 인터넷 신문 ihufsan.com
게릴라 기자/운영위원/편집장
전력요원